

새 책

▶나는 말하듯이 쓴다(강원국 지음)=김우중 회장,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온 강원국 작가의 신작이다. 회장님이나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말하기, 글쓰기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글을 잘 쓰고 싶으면 말을 잘해야 하고, 말을 잘하고 싶으면 글을 잘 써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바탕으로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법을 설명한다. 위즈덤하우스. 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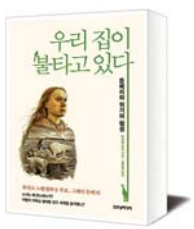
▶레몬청 만드는 법·핑거라임(김복인 지음·노경무 그림)=일러스트가 있는 짧은 소설 ‘레몬청 만드는 법’과 ‘핑거라임’을 한 권의 작은 책으로 엮었다. 한 편은 앞에서부터, 다른 한 편은 뒤에서부터 읽도록 제작됐다. 레몬청 만드는 법은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는 애기로, 평온한 일상, 그 수면 아래에서 우러난 미묘한 감정의 동요를 담았다. 핑거라임은 심리 상담의 치료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상담사가 상담소에 몰래 들어온 불청객과 겪는 이야기를 풀어냈다. 바다는기다란섬. 1만1000원.



▶코로나 리포트(하윤정 지음)=이 책은 코로나19가 시작된 날부터 종전 때까지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을 기록하며 평가한다. 사건이 일어난 상황과 의미, 관련된 정보들을 한데 모아 복기한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의로기관지원TF 팀장을 맡았던 하윤정 전 국회의원이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기록했다. 동아사이. 1만3000원.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마이클 파트 지음·김연정 옮김)=자폐성 장애를 가진 소녀 토피베리는 어떻게 기후과학에 눈을 떠 세계인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들의 아이콘이 된 걸까. 이 책은 한 가족이 기후위기에 공감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찾는 이야기다. 동시에 50년 후 지구가 대멸종이라는 파국을 맞게 될까봐 걱정돼 잠을 못 이루는 소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굿모닝미디어. 1만3000원.



▶교과서가 쉬워지는 제주여행(정은주 지음·김도형 사진)=요즘은 여행으로 체험학습을 떠나는 것이 교육의 트렌드다. 하지만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부모들에게 저자는 제주여행을 추천한다. 책에는 교과서에 소개되거나 연관된 여행지를 여행함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배우고 교과서와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길벗. 1만7000원.



▶풍수 유적 답사기-제주도 편(정석풍수연구학회 지음)=정석풍수연구학회가 몇 년 동안 전국을 누비며 기록한 풍수 답사기다. 두 번째 책인 제주도 편에서는 제주의 유적지와 문화재를 총망라했다. 특히 기존 풍수지리사와는 달리 길 안내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산재와 지세를 알 수 있는 위성 사진과 더불어 풍부한 현장 사진을 실었다. 청어람M&B. 2만5000원.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공산주의’ 제시

슬라보예 지젝의 ‘팬데믹 패닉’

인류 시스템 자기모순 노출
협력·연대 지구공동체 절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에 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빈부, 성별, 나이, 피부색을 가리지 않고 감염의 손길을 내밀지만 거기엔 기관실, 일 등석, 삼등석이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 시대 가장 논쟁적인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이같은 현실을 어떻게 헤쳐갈 것인지 들여다봤다. ‘코로나19는 세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가’란 부제를 달고 우리말로 번역된 ‘팬데믹 패닉’을 통해서다.

코로나19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진단은 분분하지만 일치하는 견해는 있다.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좋은 삶은 인류는 앞으로 바이러스와 동거하는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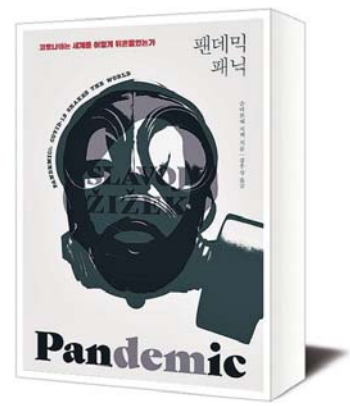
지젝은 지금의 바이러스가 자연의 복수에 혼쭐나고 있는 의료 참사가 아니라 인류가 만들고 영위해온 시스템의 자기모순이 확연하게 드러난 정치적 사건으로 분석

했다. 그래서 그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신랄하게 비판한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라는 자연적·우발적 존재가 아니라 차별과 배제의 논리로 바이러스의 창궐과 확산을 악화시키는 우리의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한 방역의 성공은 사회적 차별의 분리선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 현장의 개선과 그들의 노동에 대한 차별의 철폐 없이는 그 누구도 바이러스에서 안전하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상시적인 바이러스 사회에서 지젝은 국가의 공격 기능이 커지고 우리의 생명과 생존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평등한 공동체를 그리는 일에 논의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는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는 사회를 거침없이 공산주의라 명명하고 이를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나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과 확연히 구분한다.

이 새로운 공산주의는 막연한 꿈



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치 원리다. 마스크, 진단키트, 산소호흡기 같은 의료장비부터 생명과 생존에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공급을 시장 메커니즘에 의탁하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절하고 관리한다. 이는 한 국가의 정치적 시스템이 아니라 초국가적 지구정치의 모델로 제시됐다.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이같은 정치적 혁명의 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까. 지젝은 우리에게 묻는다. 국가의 틀을 넘어 협력과 연대를 꾀하는 지구공동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우리 먼저!’를 외치는 새로운 배제와 차별의 야만주의로 퇴행할 것인가. 강우성 옮김, 북하우스. 1만5000원.

진선희기자

‘5049’ 코드로 읽는 신궁 정조의 리더십

김준혁 교수의 ‘리더라면 정조처럼’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며 근원적 불신을 해소하고 서로를 돕고 살아가 수 있는 사회. 우리가 꿈꾸는 그곳으로 향하는 길을 정조의 리더십에서 찾는 책이 있다. 정조와 화성(華城) 전문가인 김준혁 한신대 교수의 ‘리더라면 정조처럼’으로 조선 후기의 개혁군주 정조의 리더십 코드를 ‘5049’로 명명하며 그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냈다.

정조의 아버지는 비운의 사도세자다.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을 이후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들의 온갖 음모와 폐출 위기를 겪었고 국왕이 된 이후에도 존현각 시해기도 사건(정유역변) 등 숏한 죽음의 순간을 건넌다. 그럼에도 특별한 리더십과 정치적 기술로 한 시대를 이끌었다.

저자는 정조가 말과 행동에 있어 매우 신중하고 근엄함을 잃지 않았다고 했다. 소통을 중시했고 군신 공치(君臣共治)를 내세우며 신하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다. 조선 역사상 최고의 유학자 군주였으나 다른 사상과 종교도 인정했다. 이는 엄청난 독서를 통해 지식을 넓히고,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탕평의 시대를 열었으며, 신분을 초월해 인재를 등용하는 등 저자가 49가지로 정리한 국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에 그대로 녹아있다.

‘5049’는 신궁으로 통할 만큼 활쏘기에 능했던 정조의 모습에서 따왔다. 정조는 활을 쏠 때면 50발 중 49발을 명중시켰고 마지막 한 발은 과녁을 향해 쏘지 않고 허공으로 날리곤 했다. 박제가는



이들 정조의 점양으로 해석했지만 저자는 달리 봤다. 주역에 통달했던 정조의 깊은 뜻이 숨어있다고 했다. 주역에서 점을 칠 땐 시조로 불리는 50개의 산가지를 쓰는 데 그중 1개는 태극을 상징해 사용하지 않는다. 정조는 여기에 착안해 50개의 화살을 들고 다녔고 마지막 1발은 제왕의 산가지로 여겨 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1만8000원.

진선희기자

이 책 이형상 제주목사의 ‘탐라록’

“그윽한 땅 백성들 수심 누가 알리오”



‘탐라순력도’ 중 ‘교래대림’. ‘탐라록’에는 이형상 제주목사가 교래리 사냥 장면을 흥미롭게 바라본 글들이 나온다.

출세가도로 접어들면 그는 경성감사가 올린 파면 요구 서목 이후 영천에 호연정을 짓고 은거생활을 한다. 1701년(숙종 27) 11월 제주목사에 임명되며 재기에 나서지만 주변 반응은 차가웠다. 그와 교유하던 영남 명사들은 완곡히 만류했고 노론계열 인사들은 ‘벼슬이라면 절대 거부하지 않을 사람’이라며 비아냥댔다. 병와 이형상(瓶窩 李衡祥, 1653~1733) 제주목사다. 오늘날 문화재가 된 ‘탐라순력도’와 ‘남한박물’을 통해 18세기 제주를 기록했던 인물이다.

스스로도 ‘나랏밥 먹는 귀양살이’라고 자조했던 이형상 목사의 제주살이는 어땠을까. 1702년 3월 제주로 들어오는 길부터 1703년 6월 영천으로 돌아가기까지 15개월 정도의 사적인 여정을 담은 ‘탐라록(耽羅錄)’에서 그 일단을 읽을 수 있다.

제주도민속사연사박물관이 역사자료총서로 번역 출간한 ‘탐라록’은 1~3집 이형상 목사 관련

편지 모음집에 이어 네 번째 나온 병와 관련 자료집이다. 운문 120편, 산문 16편, 전문 4편, 간찰 2편 등 총 142편으로 구성됐다. ‘섬이 명구(名區)인지라 땅은 더욱 그윽한데/ 문재(文才)는 모자라도 무재(武才)는 빼어나네/ 휘파람으로 소를 몰아 밭을 모두 밟아줘야

하고/ 절구질에도 노래가 있는데, 모두가 사투리라네/ 여인네들 등짐지고 물질하는데 남자는 도리어 한가하고/ 백성들 곤궁한데도 또한 사치하니, 풍속 부박한 것 같네/ 사시사철 가죽옷 입으며 풍속과 인정 아박한데/ 누가 옷통 벗고 잠방이 입은 이들의 수심 알아주랴’ (‘제주 지방 풍속(土風)’)

고르지 못한 날씨가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제주는 그에게 이채로운 풍경과 공평한 현실이 교차하는 섬이었다. 병와는 섬 곳곳 명승을 노래하고 교래리 말 사냥을 구경하는 등 이방의 풍속을 즐기지만 ‘밀감 따서 바칠 걱정’인 가련한 제주 사람들의 일상을 드러낸다.

이진영 제주학연구센터 교열위원이 역주했고 김익수 국가사편위원회 제주시 자료조사위원이 감수를 맡았다. 비매품. 박물관 홈페이지에 PDF 파일이 공개되어 있다. 진선희기자

태양광 주택 | 태양광 발전소 | 전기공사업
벤처 인증 기업 | 인공지능 태양광 제어기술 보유

네이버 검색창에 '나눔에너지'를 입력 하주세요.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제주도 지정

한화 Q-CELL

2020. 04

3년 연속 제주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2019. 06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 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02

미국 Pingo Solar 와 기술 협약 체결

기본형

1kW 시공단가 107만원 부터 ~

고급형

1kW 시공단가 112만원 부터~

프리미엄형

1kW 시공단가 117만원 부터~

(공통 사항: 하자 보증 이행 기간 5년)

N

나눔에너지

*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064-745-0420 FAX.070-8812-0420